

20년 뒤 학령인구 반토막 병역자원 수급도 문제



▲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향후 학령인구는 물론 병역자원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shutterstock

출생률 위기가 현실화됐다. 지방의 국립대들은 신입생들을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군에 입대할 사람마저 줄어들면서 조만간 안보에도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북 안동에 있는 국립대학교인 안동대학교의 지난해 신입생 신입생 충원율은 73%에 불과했다. 전남에 있는 국립대인 목포대와 순천대의 충원율도 80%대에 불

과했다. 대학의 수도권 집중화에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쳐진 결과였다.

가입기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생각되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재작년 기준 0.84명,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2020년 788만 8,000명인 학령인구는 2040년이면 446만 8,000명으로 43.4% 감소한다. 2020년과 비교해 2040년 초등학생(-33.4%), 중학생(-43.2%), 고등학생(-49.4%), 대학생(-51.2%) 가립 것 없이 학생수가 반토막이 난다.

병역자원 수급도 문제이다. 재작년 33만여 명이었던 20세 남성 인구는 4년 뒤에 23만여 명으로, 2045년엔 그 절반 수준인 12만 명대까지 떨어진다. 가뜩이나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상비군 규모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한편, 생산연령인구는 재작년 3,700만 명대에서 2070년이 되면 1,700만 명대까지 줄어들 걸로 보여, 경제 성장 동력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하락

봄 이사철을 앞둔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시장에 냉기류가 돌고 있다.

지난 8일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해 큰 폭으로 올랐던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2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수도권 아파트 주간 전셋값 변동률은 지난 1월 넷째주(24일) -0.02%로 하락전환했고 뛰어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1월 마지막주(31일) -0.02%를 보이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주간 기준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 2019년 6월 이후 2년8개월 만이다.

시장에서는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전세자금 대출금리 상승,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이동 수요 감소,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3일 기준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3.45~4.95%로 1년 전보다 최고 2%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대출을 이용해 전세금을 조달하기가 훨씬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또 재작년 상반기 전세를 계약했던 임차인은 올해 돌아온 계약 만료 때 대부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며 놀라 앓고 있다는 게 일선 부동산 중개업계의 진단이다. 최근 2년 새 껑충 뛰어오른 전셋값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신규 계약을 맺는 새 집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규제로 인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셋값 약세 현상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인 행복감 지표가 떨어졌다



▲ 한국인의 행복도 순위는 전년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shutterstock

한국 경제는 세계 10대 강국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했으나 한국인의 행복도 순위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인의 전반적인 행복감이 6.56점(만점 10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는 한 해 전 조사에서 기록한 6.83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과 비교할 때 행복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떨어졌다. 여기에는 전반적인 행복감은 물론 삶의 의미,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영역별 만족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보고서는 "소득 감소와 사회적 관계 위축 등 코로나 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일어나는 부정적 현상이 행복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특히 사회적 취약 집단이나 계층의 행복 감소폭이 더 커졌다. 예컨대 노인, 저학력층, 저소득층, 불안정 고용자, 1인 가구, 세입자, 기초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의 행복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평균 6.77점으로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6.27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2020년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2021년 8~10월 전국 8천 가구의 15살 이상 국민 약 1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2021년 유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도는 160여개국 중 50위였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